

# 성 유대철 베드로

##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      |           |                       |                              |                         |
|------|-----------|-----------------------|------------------------------|-------------------------|
| 주일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어린이 미사),        | 오후 7시                        |                         |
|      | 일요일       |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                         |
| 평일미사 | 월요일 / 토요일 | 오전 6시                 | 고 해 성 사                      |                         |
|      | 화요일       |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                              |                         |
|      | 수요일       |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 주 일 미사 전 30분                 |                         |
|      | 목요일       |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 평 일 미사 전 15분                 |                         |
|      | 금요일       |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                         |
|      |           |                       | 유 아 세 례                      | 출 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      |           |                       | 관 련 혼 배                      |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

① **성당 출입 지침 안내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 날씨가 무더워 지는 요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 마스크 착용 필수
- 성당입구에 비치 된 문진표 필히 작성(개인필기구 지참)
- 손 세정제 사용
- 발열 체크
-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 성당모임 금지

② **미사 시간 안내**

• 당분간 매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자와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이 큰 신자들 에게는 주일미사 참여의무를 관면합니다.

|     |       |                           |
|-----|-------|---------------------------|
| 평 일 | 월·토   | 오전 6시                     |
| 일 일 | 화 ~ 금 | 오전 6시, 10시                |
| 주 일 | 토요일   | 오후 7시                     |
| 일 일 | 일요일   | 오전 6시, 9시, 11시, 오후 5시, 7시 |

③ **세례식 안내**

- 세 려 식: 5월 24일(주일) 오후 3시, 2층 대성전
- 종합교리: 5월 23일(토) 오후 7시, 1층 프코홀
- 예행연습: 5월 23일(토) 오후 8시, 2층 대성전

④ **세례식 축하 꽃다발 예약**

• 5월 20일(수)까지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예약금 3만원)

⑤ **새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6월 14일(주일) 오후 12시 20분  
 ※ 6월 14일(주일)이후에는 교리 수업 진행을 위해 예비신자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⑥ **5월 ‘성모의 달’ 꽃 봉헌**

• 성모의 달을 맞아 제대 꽃을 봉헌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성모의 밤 행사**

• 5월 30일(토)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성모의 밤 행사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일 성모동산, 로시리오 동산, 십자가의 길 축복식이 있습니다.  
 • 지금 새로이 단장 중인 성모동산이 잘 구성되어 우리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⑧ **21대 사목회 상임위원회**

• 일사: 5월 17일(오늘) 오전 9시

⑨ **우리 본당 토막상식 - 성당 표지석**



1982년 성전 증축을 위해 공사를 하던 중 나온 큰 돌을 버리지 않고, 표지석으로 만들어 앞면에는 청담 천주교회를 새기고, 뒤편에는 본당 주보성인인 성 유대철 베드로상을 새겼다.

성 유대철 베드로는 103위 한국 순교 성인 중에 13세의 가장 나이 어린 성인으로 역관인 아버지 성 유진길 아우구스티누스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1839년 기해박해 때 부친이 먼저 체포되어 서소문 밖에서 순교 후 스스로 천주교 신자임을 밝히고 투옥되었다. 어린 나이에 모진 문초와 회유를 뿌리치고 신앙을 증거하였고, 혹독한 형벌을 가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박해자들에 의해 공개처형 대신 감옥 안에서 목 졸려 순교되었다. 본당에서는 1977년 5월 8일 성당 완공과 더불어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선정되었다.

성 유대철 성인 한 손에는 '천주'라는 글자가 새겨진 옛 성경책을 들고 다른 손에는 성인의 순교를 상징하는 칼을 들고 몽게몽게 피어나는 구름 아래에 보이는 별을 따르고 있는 형상으로, 배경에는 한국교회 103위 순교성인들을 상징하는 103송이의 무궁화와 휘광이 새겨져 있다.

이 부조상은故 이순석 바로 작가가 약 8개월간에 걸쳐 작업한 것으로 앞면의 청담 천주교회 글은故 일중 김축현 박사가 서예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⑩ **성모동산 시설보수 봉헌**

- 손영모 가브리엘: 1,000만원
- 우정수 마르타: 1,000만원

⑪ **5월 17일(오늘): 헌미헌금 2차 헌금**

성가번호    입 당: 143            예물준비: 221, 220            성 체: 188, 182            파 견: 245

화 답 송

온 세상 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21)**

**세 번째 나눔\_하느님께 이르는 일상적 친밀함**

**친밀한 인간관계**

요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가 유행이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인생의 여정과 황혼의 회한을 담은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곡과 가사가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이 흘러내리게 한다. 부부란 일상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가장 으뜸가는 관계다. 나이가 들어 결혼생활 40년, 50년이 넘어서는 부부에게 친밀함의 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세월 속에 쌓이고 형성된 부부의 친밀함은 모험과 위기의 연속이었고, 배움과 성장을 통해 기쁨과 고통을 나누었으며, 존경과 배려의 관계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 한 세월의 흔적이 자녀, 손자, 손녀에게 이어지며 친밀한 관계는 다양한 모습을 띤다. 저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혼수상태로 임종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그동안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손자, 손녀들이 다가와 “할아버지, 사랑해요.”하며 애교 넘치는 말을 할 때 하느님이 안아주시듯 그를 안으며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느님이 어떻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

헨리 나우웬은 20세기 유명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사제서품을 받고 영성과 심리학을 접목하여 학위를 받은 후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며 수많은 영성서적을 출판한다. 존경받는 교수이자 학자이지만 더 이상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1986년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토론토시 외곽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슈 새벽 공동체>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보여준다. 말을 할 수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인 아담을 돌보면서 나우웬은 그를 통해 사랑과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아담이라는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돕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돕고 있었다고... ..” 고백하며 그는 아담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인식한다. 아담과의 친밀함 속에 헨리 나우웬은 하느님을 발견하며 과거 학교생활에서 얻지 못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우리는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고 있는지...

**자연에서 하느님과 친밀함을 체험**

저자는 60대에 다녀온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기억하면서 ‘걷기’는 전적으로 영성 훈련임을 강조한다.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산티아고 순례길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고, 자신이 만든 갖가지 가면과 장막으로 가려진 참자아를 발견하는 노력이라고 한다.(126쪽) 산과 나무, 꽃과 벌레 등 자연의 신비에 감추어진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침묵 속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본다. 자연과의 친밀함이 가져다주는 은총의 선물이다.

2020. 05. 17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봉헌 예률                  |          |             |          | 교무금 납부 현황          |          |         |          |
|------------------------|----------|-------------|----------|--------------------|----------|---------|----------|
| 부활 제 5주일 봉헌금           |          | 5,781,500원  |          | 총 세대수              |          | 3,343세대 |          |
| 본당 시설보수 2차             |          | 2,921,200원  |          | 총 납부세대             |          | 942세대   |          |
| 교무금                    |          | 26,092,000원 |          | 지난주 납부세대           |          | 14세대    |          |
| 성소후원금 (4건)             |          | 180,000원    |          | 총 납부율 (%)          |          | 28.2%   |          |
| 성모의밤 꽃봉헌 (05/06~05/12) |          |             |          | 감사헌금 (05/06~05/12) |          |         |          |
| 강 바오로                  | 30,000원  | 이 바울리나      | 50,000원  | 조 사도요한             | 70,000원  | 윤 프란치스코 | 50,000원  |
| 최 아마따                  | 100,000원 | 안 요안나       | 100,000원 | 지 크리스티나            | 300,000원 | 이 세라피나  | 100,000원 |
| 배 요셉                   | 100,000원 | 이 울리아노      | 50,000원  | 김 안젤라              | 150,000원 | 홍 로즈마리  | 300,000원 |
| 이 크리스티나                | 300,000원 | 이 예로니모      | 100,000원 | 안 요안나              | 500,000원 | 윤 세실리아  | 50,000원  |
| 정 프란치스코                | 50,000원  | 정 스테파노      | 100,000원 | 박 마리아              | 50,000원  | -       | -        |
| 합계: 980,000원           |          |             |          | 합계: 1,570,000원     |          |         |          |